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증권회사 인수·합병(M&A) 촉진방안

2013. 12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 추진배경	1
----------------	---

II . 증권회사 인수 · 합병 촉진방안	2
------------------------------	---

1. M&A추진 증권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
---------------------------------	---

2. 경영부진 증권회사 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강화	6
------------------------------------	---

3. M&A 제한요인 해소	8
----------------------	---

III . 추진계획	9
------------------	---

I

추진배경

- 선진외국에 비해 영세한 규모의 62개 증권회사가 위탁매매업 위주의 유사한 영업구조로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영업 중

* 우리나라와 미국 증권회사 규모 비교 : 별첨1 참고

** 위탁매매업무 수익비중 : 대형사 52%, 중소형사 45%

*** 증권산업내 경쟁도(HHI) : 한국 405, 미국 2,166, 일본 1,757

- 이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 경쟁 등으로 증권업계의 수익성이 악화

* 위탁수수료 현황(bp) : (FY'08) 12.1 → (FY'10) 9.9 → (FY'12) 9.3

** ROE 추이(%) : (FY'10) 7.7 → (FY'11) 5.6 → (FY'12) 3.0 → (FY'13) 0.4^e

- 특히, '12년 이후 국내 자본시장이 거래부진 등 침체국면을 지속 하면서 다수의 증권회사가 경영악화에 직면

* FY'13 상반기 기준 25개사 당기순손실, 12개사 자본잠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간 M&A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은 극히 미흡

* '10년~'13.10월 현재까지 증권회사간 M&A는 1건(한화&푸르덴셜)

-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서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나 금융 투자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

- 또한, 선제적·단계적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잠재적 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따라서, 시장 자율적인 M&A 등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필요

Ⅱ 증권회사 인수·합병(M&A) 촉진방안

< 기 본 방 향 >

- ◇ 증권회사간 인수·합병(M&A) 등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유도
- ◇ 이를 위해
 - ①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② 경영부진 증권회사 등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강화
- ◇ 아울러 M&A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

1

M&A 추진 증권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투자은행) 지정 요건 완화

- 일정규모 이상의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에서 “2조 5천억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현황(자기자본, 조원, 13.9월) : 대우(4.0), 우투(3.5), 삼성(3.3), 한투(3.1), 현대(3.0) 등 5개사가 '13.10월 금융위로부터 IB로 지정받음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의 업무영역 : ① 기업대출, ② 프라임브로커(헤지펀드에 대한 자금 지원, 자산관리, 후선업무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구체적 시행방안>

▶ 대상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회사

- ① 국내에서 영업 중인 증권회사일 것
- ② 1개 이상의 다른 국내 증권회사와 M&A를 통해 자기자본이 5천억원 이상 증가할 것

※ (예시) i) 자기자본 2조원인 증권회사 → 5천억원 이상 M&A 필요
ii) 자기자본 1.5조원인 증권회사 → 5천억원 이상 M&A 후 5천억원 증자 필요

※ “인수”의 경우 자기자본 증가규모는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의 M&A이전 자기자본을 단순 합산하여 산정

▶ 조건 : “인수”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이행해야 함

- ① 피인수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 β 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 ② 인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합병할 것

▶ 기한 : 시행일로부터 3년내 추진된 M&A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 필요조치 : 자본시장법 개정

※ (참고) '13.9월말 현재 5대 IB를 제외한 주요 증권사 자본규모(조원)
- 신한(2.2), 미래(2.1), 대신(1.6), 하나(1.6), 동양(1.1), 신영(0.9),
한화(0.9), 키움(0.9), NH(0.8), 메리츠(0.7)

② 개인연금신탁 업무 허용

- 일정규모 이상의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업무를 허용

* 연간 1,800만원 범위내에서 5년 이상 납입시 소득공제혜택(연 400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금액의 100%)이 주어지는 상품

<구체적 시행방안>

▶ 대상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회사

- ① 국내에서 영업중인 증권회사일 것
- ② 1개 이상의 다른 국내 증권회사와 M&A를 통해 자기자본이 20% 이상 증가할 것(단, M&A후 자기자본이 3천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는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간주)
- ③ ②항에 의한 자기자본의 증가규모가 1천억원 이상일 것

- ※ (예시) i) 자기자본 3천억원인 증권회사 → 1천억원 이상 M&A 필요
- ii) 자기자본 1조원인 증권회사 → 2천억원(20%) 이상 M&A 필요
- iii) 자기자본 2조원인 증권회사 → 3천억원 이상 M&A 필요

※ “인수”의 경우 인센티브 부여 조건, 자기자본 증가규모 산정방식 등은 ㉠의 사항을 준용

▶ 기한 : 시행일로부터 3년내 추진된 M&A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 필요조치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③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업 허용

- 일정규모 이상의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을 우선적으로 허용

* 사모펀드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을 인가단위로 신설 예정

<구체적 시행방안>

▶ 대상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회사

- ① 국내에서 영업중인 증권회사일 것
- ② 1개 이상의 다른 국내 증권회사와 M&A를 통해 자기자본이 20% 이상 증가할 것(단, M&A후 자기자본이 1,50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는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간주)
- ③ ②항에 의한 자기자본의 증가규모가 500억원 이상일 것

※ (예시) i) 자기자본 2천억원인 증권회사 → 500억원 이상 M&A 필요

ii) 자기자본 5천억원인 증권회사 → 1,000억원(20%) 이상 M&A 필요

iii) 자기자본 1조원인 증권회사 → 1,500억원 이상 M&A 필요

※ “인수”의 경우 인센티브 부여 조건, 자기자본 증가규모 산정방식 등은 ㉠의 사항을 준용

▶ 기한 : 시행일로부터 3년내 추진된 M&A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 3년 후에는 일반 증권회사, 투자자문·일임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펀드운용사에 대해서도 허용할 방침

▶ 필요조치 : 인허가 정책 운용 및 자본시장법 개정

*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에는 현행법에 의거, 업무범위를 사모펀드 운용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집합투자업 인가

-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후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통해 업무 영위

-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 → 증권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경주하도록 유도
- (현행)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NCR 150%미만」 등을 규정
- 그러나, 현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경영부진 회사에 대한 선제적 경영개선 유도 장치로는 한계
- * ‘13.9월기준 자본잠식 12개사의 평균 NCR은 640%이며, 이는 업계 평균 (495.9%)보다도 높음
- (개선)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자기자본 대비 외부 차입비중이 높아 부실 우려가 있는 증권회사에 대해서
- 경영개선 권고·요구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개선

<구체적 시행방안>

▶ 조치 대상 및 내용

	조치 대상*(기준)	조치 내용
경영 개선 권고	(현행) ▪ NCR <150% ▪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등급 및 자본적정성 4등급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및 조직 운용 개선 · 경비절감 · 점포관리의 효율화 · 부실자산 처분
	(추가) ▪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 (총자산/자기자본×100)이 900%이상인 회사 ▪ 레버리지비율이 1,100%이상인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감소행위 제한 · 신규업무 진출 제한 · 자본금 증자 or 감액 권고

경영 개선 요구	<p>(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R <120% ▪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4등급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1,100%이상인 회사 ▪ 레버리지비율이 1,300%이상인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개선권고 조치내용 · 고위험자산 보유제한· 처분 · 점포 통·폐합, 신설제한 · 자회사 정리 · 임원진 교체 요구 · 영업 일부 정지 · 합병, 인수 등 매각 요구
----------------	---	---

* “2년 연속 적자”에서 자기자본 5%미만(2년 합계액)인 경우는 제외

* 구체적인 레버리지비율 산정방식(예: 총자산에서 고객예탁금 제외 등)은 금감원에서 정할 예정

▶ **시행시기 : 경영실적(적자여부)은 2014회계년도부터 적용하고, 레버리지비율 기준은 2016년부터 적용(2년 유예기간 부여)**

* 여전업의 경우 2016.1월부터 레버리지비율 규제 적용 예정(2012년 법 개정)

* 은행의 경우에도 2016년부터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논의 중

→ 이에 따라 신설기준에 의한 첫 번째 적기시정조치는 ‘16년초에 ‘14~‘15년 경영실적과 레버리지비율을 평가하여 부과될 전망

* 증권회사는 FY‘14부터 52개사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전환, 1개사는 FY‘15부터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전환 예정

▶ **필요조치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M&A를 제약하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를 개선

- (현행) 개별 증권회사를 기준으로 NCR이 산정되어 M&A를 위해 다른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할 경우 출자금 전체가 자본에서 차감되어 NCR이 급락*

* NCR 하락에 따른 유무형적 손실 : 건전성 관련 평판 손실, 국민연금 수탁 기관 선정 곤란, 추가적인 위험인수 곤란에 따른 영업 위축 등

- (개선)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을 통해 자회사 출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크에 따라 차별하여 총위험액에 반영

*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 도입 전까지는 M&A로 인한 보증권사 출자금액을 보증권사 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 특례(단, 출자금은 시장위험액에 반영) 도입

▶ 필요조치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Ⅲ 추진계획

- 2014년 2/4분기~하반기중에는 M&A 촉진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

추진방안		필요조치	시행시기(목표)
인 센 티 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자본시장법 개정	2014년 1/4분기 중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14년 하반기 시행 목표
	개인연금신탁업 허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014년 2/4분기 중 시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 허용	인가정책 운용	2014년 2/4분기 중 시행
		자본시장법 개정	2014년 1/4~2/4분기 중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14년 하반기 시행 목표
경영부진 증권회사 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요건 강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14년 2/4분기 중 시행 ※ 2014 회계년도 경영실적 부터 적용 ※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2016년부터 적용
M&A관련 NCR제도 개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14년 2/4분기 중 시행

참고

韓・美 대형 증권회사 규모 비교

구 분		총자산 (조원)	자기자본 (조원)	당기순이익(억원)	ROE (%)	직원수 (명)
한국	우리투자	26.6	3.5	769	2.2	3,053
	대우	25.0	4.0	991	2.5	3,109
	한국투자	19.3	3.2	1,590	5.1	2,641
	현대	18.6	3.1	△ 21	-	2,629
	삼성	18.4	3.3	1,254	3.8	3,117
	평균(A)	21.6	3.4	917	2.7	2,910
미국	골드만삭스	997.7	80.5	81,064	10.9	32,400
	모건스탠리	830.2	66.0	11,948	1.9	57,000
	평균(B)	914.0	73.3	46,506	6.8	44,700
비교(A/B*100%)		2.4%	4.6%	2.0%	39.5%	6.5%

(환율 : 1,063원 적용, 12년말 기준)